

검찰연합일보  
모바일 보기고위공직자 범죄신고  
02-6320-0200

고위공직자 범죄신고

02-6320-0200

검찰  
PROSECUTION SERVICE

제 634 호 (2023년 8월 10일 목요일)

대표전화 : 1533-1545

# 안성 9층짜리 신축공사장 1개층 붕괴 “2명 심정지·4명 부상”



9일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안성시 옥산동의 한 신축 공사장에서 소방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9일 오전 11시 49분께 경기도 안성시 옥산동의 한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2명이 매몰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고 4명이 다쳤다.

이날 사고는 신축 중인 9층 규모의 건

물 9층 바닥면이 8층으로 무너져 내리면서 일어났다. 이 사고로 베트남 국적의 20대 A씨와 30대 B씨가 매몰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사고 발생 40여분만인 낮 12시 25분께, B씨는 1시간 20여분만인 오후 1시 6분께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신축 중인 9층 규모의 건

물 9층 바닥면이 8층으로 무너져 내리면서 일어났다. 이 사고로 베트남 국적의 20대 A씨와 30대 B씨가 매몰됐다가 심정지

## 베트남 국적 2명 매몰됐다 구조 콘크리트 타설 중 바닥면 무너져 발생

악했으나, 이후 부상자 규모를 4명으로 집계했다. 이들은 사고 당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사고 직후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낮 12시 1분 대응 단계를 2단계로 상향하고 특수대응단 등 4개 구조대를 포함해 52명을 현장에 투입했다.

이후 대응 단계는 낮 12시 43분 1단계

로 하향됐다. 다만, 낮 12시 55분 사고 현장의 추가 붕괴 징후가 확인됨에 따라 필수 인원과 장비만 현장에 투입하고 수시로 안전 평가를 진행하며 추가 정밀 인명 검색을 벌이고 있다.

안성시는 굴착기와 크레인 등을 지원했다.

국토교통부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안전관리원이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

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사고 현장에서 추가 사고와 인명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이 수습되는 대로 공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협의가 확인될 경우 대상자를 형사 입

건할 계획이다.

붕괴 사고가 난 건물은 지하 2층~지상

9층, 연면적 1만4천여㎡ 규모의 건물이다. 일반 상업지역 내에 제1·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축 허가를 받았다.

지난 2월 말 착공했으며, 준공 예정일은 2024년 5월 말이다.

/ 송진영 기자

## 순천서 버스끼리 충돌…스위스 캠버리대원 3명·승객 5명 경상

순천 수련원서 숙식 후 서울로 돌아가던 중 시내버스와 부딪혀



전남 순천서 캠버리 대원 태운 버스 교통사고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캠버리’에서 조기 퇴영한 스위스 대원들이 탔던 버스가 전남 순천에서 시내버스와 부딪혀 8명이 다쳤다. 9일 낮 12시 46분께 전남 순천시 서면 운평리 도로에서 캠버리 대원들이 탔던 관광버스와 순천 시내버스가 충돌했다.

관광버스에는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캠버리’에서 조기 퇴영해 순천에 온 스위스 대원 36명과 인솔자·버스 운전사 등 38명이 탔고 있었다.

사고로 인해 스위스 대원 3명이 가벼운 타박상 등을 입어 이 중 2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시내버스에 탔고 있던 승객 5명도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스위스 캠버리 대원들과 대회 관계자

등은 모두 166명으로, 전날 밤 6대의 버스에 나눠 탔고 순천 수련원에 도착했다.

서울에 숙소가 마련되지 않아 급작스레 순천 수련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련원 야영장에서 하룻밤 숙식하고 이 날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사고가 났다.

사고 버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인원은 서울로 출발했으며, 사고 버스에 탔던 대원들과 부상 대원들은 대체 버스를 이용

해 서울로 갈 예정이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부상자들을 병원으로 옮기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숙소가 없어 전국에

분산 배치된 캠버리 대원 일부가 순천에서 1박을 했다”며 “치료와 서울 복귀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조현정 기자

## 캠버리 인솔에 공기업 1천명 동원…“우리가 왜 뒷북수습?” 반발

### 조직위측 ‘SOS’…기재부, 기관별 10~40명 인력 요청

오는 1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상암경기장)에서 열리는 ‘캠버리 폐영식 및 K팝 콘서트’의 지원인력으로 공공기관 직원 약 1천명이 동원된다.

일부에서는 업무와 무관한 차출이라는 반발도 나온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각 공공기관에 캠버리 폐영식 및 K팝 콘서트 지원인력을 요청했다.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캠버리 대원들을 인솔할 인력이 필요하다는 조직위원회 측 요청에 따른 것이다. 공공기관별로 적게는 10명, 많게는 40명 가량 투입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캠버리 대원 4만명을 태우는 버스만 해도 1천 대”이라며 “콘서트 당일 서울 시내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를

공공기관들의 경영평가를 담당하는 기재부의 요청을 거부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40명 정도 요청받았다”며 “우리가 공무원도 아닌데 왜 정부가 잘못한 일을 뒤처리해야 하느냐는 불만이 많아 참여를 독려하기 난감하다”고 말했다.

일부 노조에서는 강경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기업은행[024110] 노조는 조합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사측은 노조와의 사전 합의 등의 절차를 무시하고 인력 파견을 추진하고 있다”며 “단체협약 위반에 확인될 경우 사측에 엄중히 대처하겠다. 공공기관 직원들을 훌대하는 기재부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 김승훈 기자

법무부, 살인예고글·공공장소 흉기소지  
처벌규정 만든다…“단순 장난 아닌 범죄”

‘공중협박’ 신설 등 법률 개정 추진

정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잇따르는 ‘온라인 살인예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법무부는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살인 예고 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협박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해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찰과 경찰은 인터넷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살인예비 등 혐의를 적용해 단속하고 있다.

다면 이런 기존 법 조항은 피해자의 특정 여부, 실제 범행 계획 실행 여부 등에 따라 적용 가능성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에 살인 예고 글 자체를 범죄로 규

정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의 건의를 받아들여 공중에 대한 협박 행위를 처벌하는 미국, 독일 등 입법례를 참고해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려 한다”며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살인 예고 등 공중의 생명·신체에 대한 공포심을 야기하는 문언 등을 공공연하게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나 공중밀집장소 등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 상해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까지 인터넷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 10대 2명 등 총 6명을 검거해 구속했다.

검찰은 “온라인상 살인 예고 위협 글 게시는 단순 ‘장난’으로 돌릴 수 없는 범죄”라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 박정민 기자

SAMSUNG

Galaxy Z Flip5

2023년 8월 11일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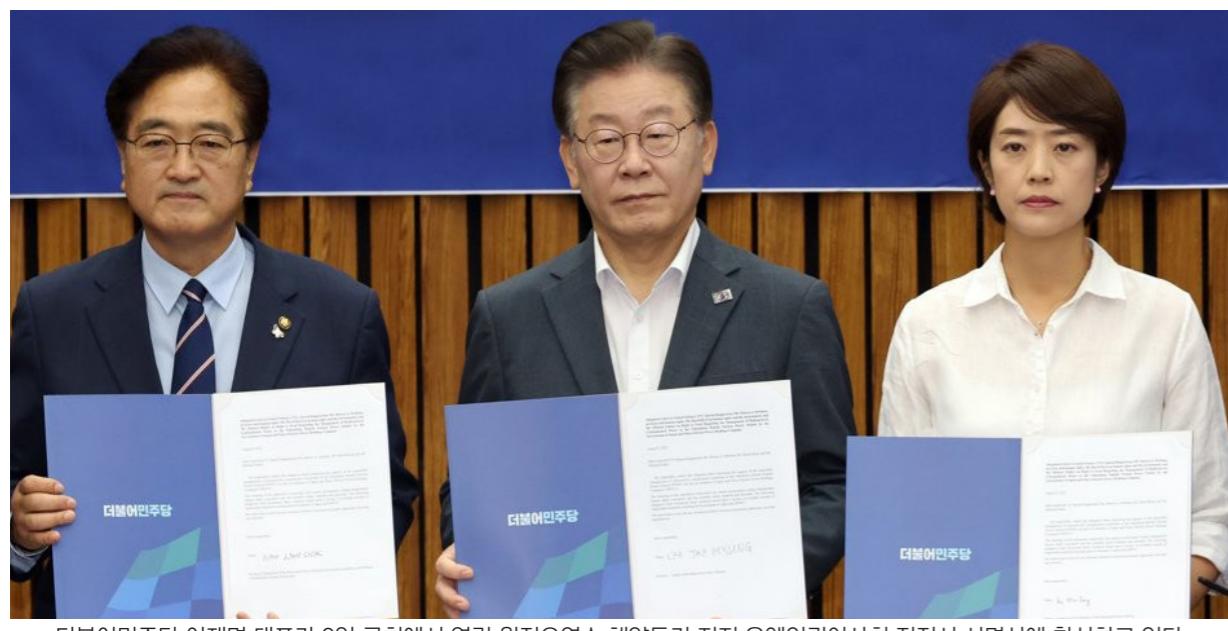
World EXPO 2030  
BUSAN, KOREA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합니다

samsung.com

\*이미지를 클릭하여 출판된 이미지입니다. \*이는 국가나 통신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민주, UN인권이사회에 '日오염수 저지' 진정서 제출키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유엔인권이사회 진정서 서명식에 참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유엔인권이사회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한 진정서를 제출하기로 하고 국제 여론전에 나섰다.

이르면 이달 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해양 방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방류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당대표는 비롯한 지도부와 우원식 당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위' 상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유엔 인권이사회에 낼 진정서 서명식을 가졌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안전 관련 과학적 대책이 미비한 데다 각종 국제 협약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진정서에서 엄격한 방사능 위험 평가 없이 추가로 오염수를 방출해서는 안 된다는 점, 오염수 방출로 인한 손실보다 이익이 더 커야 한다는 원칙을 어겼다는 의혹,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다핵종제거설비

### 이재명 대표 등 서명식…의원·시민 추가 서명받아 이달말 제출

#### 李 “일본 결정에 맡길 거면 정부는 왜 존재…尹, 입장 밝혀야”

(ALPS·알프스)에 대해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점, 일명 '세슘우리'를 반영한 방사성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일본이 자료를 제대로 내놓지 않는 등 정보접근권이 제한됐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허용해주는 외교 행보를 할지도 모른다는 국민적 불안감이 팽배하다"면서 "더는 윤 대통령을 믿고 우리 국민과 바다의 안전을 맡길 순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미래뿐 아니라 삶의 터전인 바다를 오염시키는 행위를 국제사회의 상식, 국제기구의 전문 절차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유엔인권이사회 진정단을 모집하고, 의원 및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이달 말 진정서를 낼 계획이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지속적인 형태의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개인 또는 단체가 해당 국가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민주당은 일본이 오는 18일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오염수 방류 저지 표명을 요구할 것이란 언론 보도가 나온 것을 고리로 여권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관련 보도를 언급하며 "한미일 정상회담을 오염수 방류 명분으로 활용하겠다는 노골적 의도"라며 "우리 정부의 안전을 일본 결정에 맡길 것이면 대한민국 정부는 대체 왜 존재하나.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은 방류 반대 입장을 명백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과 면담 촉구하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

### 이태원 유족 “경찰 집회방해로 다쳐”…국가 상대 소송

이태원 참사 유족이 집회에서 경찰의 물리력 행사로 상해를 입었다며 9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5월8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신고된 집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경찰이 물리력으로 집회 물건을 빼앗고 둘러싸 움직이지 못하게 해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소송에는 유족 3명이 참여해 1인당

500만원씩 청구했다.

단체들은 원고 3명이 흉부·두부 타박상과 다발성 죽상, 뇌진탕 등 각각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오민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경찰관들이 법적 근거 없이 집회물품 반입과 사용을 막으며 명백히 집회를 방해했다"며 "공권력의 이름으로 자행된 위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 강민웅 기자

### 식약처장, 잼버리대회 음식 제공업체 상태 점검



반음식점 3곳을 직접 찾아 식자재 공급·보관 현황과 조리·제조 시설 등의 위생 상태를 확인하고 조리·운반 과정에서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오 쳐장은 이 자리에서 "지속되는 폭염으로 식중독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는 만큼, 식재료, 조리기구 등 세척·소독, 조리 음식 가열온도·시간 준수, 배송·배식 온도 관리 등 위생·안전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잼버리대회 종료 시점까지 대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업체 4곳을 방문해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태풍 '카누' 상륙으로 대회 참가 대원

들이 대피 시설에 입소함에 따라 대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업체의 위생·안전을 확보해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현장 점검이다.

오 쳐장은 이날 충북 진천의 도시락 제조업체 1곳과 대전·세종·천안의 일

/ 박지원 기자

### 늘봄학교 내년 전국 확대

#### 이주호 “현장 호응에 1년 앞당길 것”

### 지방자치단체·지역사회 도움 필요, 대학역할 중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늘봄학교를 2025년까지 전국적으로 대하기로 했는데 (이보다) 1년을 앞당기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2학기부터 늘봄학교를 시범 운영하는 충남 천안 불당초등학

교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교육개혁 중에서 현장의 호응이 가장 뜨거운 분야가 늘봄학교”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늘봄학교 전국 확대 시기를 2025년이라고 밝혔으나 이를 내년으로 1년 앞당긴다는 뜻이다.

늘봄학교는 올해 1학기 5개 지역 214

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됐다. 2학기부

터는 8개 지역, 400여개 초등학교로 시범

운영이 확대된다.

이 부총리는 “과거에는 오후 1시면 아이들이 집에 갔었는데 늘봄학교는 오후 늦은 시간까지 방과 후 프로그램이나 초 1 에듀케어 돌봄을 통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기도 하고 좋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듣기도 하고 학부모님들이 좀 안심하고 학교에 맡길 수 있는 새 프로그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늘봄학교 확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대학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당부했다.

이 부총리는 “방과 후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면 초등학교 돌봄도 큰 계기를 맞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움이 필요하다”며 “특히 대학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라이즈 체계(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글로컬 대학 사업이 시작되는 등 지역과 지역대학의 발전이 함께하는 다양한 모델이 있겠지만,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에 대학이 직접 참여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동반성장 모델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좀 더 많은 대학의 참여가 활성화되면 초등학교 돌봄도 큰 계기를 맞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신창희 기자

**우정사업본부**

사랑이 넘치는 가족의 품에서도

함께  
웃어요

우체국 예금  
우체국 보험

젊음이 가득한 캠퍼스에서도

땅끝 섬마을에서도

활력이 넘치는 한국 금융의 허브에서도

본 광고는 우체국 직원들의 참여로 제작되었습니다



# ‘먹사연 불법 기부’ 여수상의 前회장 검찰 소환



되돌아가는 송영길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의 외 과조직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전날 박용하 사연)를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는 전직 여

수상공회의소 회장을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전날 박용하 (75) 전 여수상의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

## 송영길 외곽조직에 수억원 불법 기부·후원 의혹

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을 상대로 먹사연에 수억원을 후원한 경위와 송 전 대표 측과 후원 액수 등을 조율했는지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회장 재직 당시 여수상의 가 운영 목적에 맞지 않게 먹사연에 수억 원을 불법 후원한 것으로 본다.

여수상의는 박 전 회장 재직 시기인 지난 2018년 7월~2021년 2월 다섯 차례에 걸쳐 총 8천만원을 먹사연에 기부금·후원금 등 명목으로 지출했다. 특히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3개월여 앞둔 2021년 1~2월 총 4천만원을 집중적으로 후원했

다. 박 전 회장은 이 밖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 업체와 사내이사로 있는 업체 등을 통해 총 2억5천여만원을 먹사연에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이러한 정황을 포착해 박 전 회장의 주거지와 사무실, 관련 기업 등 15곳을 압수수색 해 회계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송 전 대표의 인지·관여 여부 등을 확인 한 뒤 이러한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 전 대표를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 최원준 기자



## 북 “임의의 시간에 위성 쏴올릴 것”

### 정찰위성 재발사 거듭 공언

#### 대외 월간지에서 과거 위성 발사 성과 언급하며 강조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한 북한이 9일 “앞으로도 임의의 시간에 위성들을 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공개된 대외선전용 월간지 ‘금수강산’ 8월호에서 과거 위성 발사 사례를 열거하면서 “기적 중의 기적”이라 고 자평하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 기사는 1998년 8월31일 첫 위성인 ‘광명성 1호’를 쏴올린 것을 기념해 작성한 것으로, 앞으로 쓸 위성이 정찰위성 인지 등도 특정되지 않았다.

다면 북한이 5월 말 정찰위성 ‘만리경 1호’ 발사가 실패로 돌아간 직후 6월 초 김 예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와 노동당 8차 전원회의 보고 등에서 정찰위성 재발사를 공언한 점을 고려하면 이를 염두에 둬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달 18일 한미일 정상회담과 21

~24일 한미연합 군사연습과 연계돼 실시되는 우리 정부의 ‘을지연습’을 앞두고 정찰위성 재발사를 감행할지 주목된다.

지난달 7~16일 사이엔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로켓 엔진 시험이 이뤄진 정황이 인공위성 사진에서 포착됐다고 NK뉴스가 보도한 바 있다.

한편 잡지는 기사에서 그간의 위성발사 이력과 국가우주개발국 창설 등을 상기한 뒤 2016년 차진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 발사 성공으로 ‘우주강국 전열’에 들어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광명성 4호는 궤도 진입에는 성공했어도 지상 기지국과 신호 송수신이 탐지된 적이 없었고, 지난달 낙하 후 소멸했다. 현재 북한이 발사해 궤도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은 2012년 발사한 ‘광명성 3호 2호기’가 유일하지만, 이 역시 정상작동 여부가 확인 안 된 ‘죽은 위성’이다.

/ 오정민 기자

## 방통위, 방문진이사에 차기환 임명

### KBS이사는 서기석 추천



서기석 전 현법재판관(왼쪽)과 차기환 변호사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서기석 전 현법재판관을 KBS 이사회 이사로 추천하는 안과 차기환 변호사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들 안건은 야권에서 추천한 김현상 임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여권 추천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차 변호사는 곧바로 방문진 이사로 임명되고, 서 전 재판관은 KBS 이사로 임명되고, 서 전 재판관은 KBS 이사

후보로 추천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서 전 재판관은 지난달 2020년 TV 조선 재승인 심사 접수 변경 문제에 연루 돼 해임된 윤석열 전 KBS 이사의 후임 후보이고, 차 변호사는 최근 자진해서 사퇴한 임정환 전 방문진 이사의 후임이다.

서 전 재판관과 차 변호사는 공영방송 이사진에 진입할 경우 각각 KBS 이사장과 방문진 이사장을 맡을 것이라는 예상 도 나온다. 서 전 재판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21회)에 합격한 뒤 청

인사의 결정권을 쥐는 KBS 이사회와 방문진 이사회의 구도에도 변화가 따를 전망이다.

KBS 이사회 총원은 11명으로 이날 청문을 앞둔 남영진 이사장까지 해임되고 이 자리도 여권 인사가 채우면 여야 6대 5로 정치적 구도가 뒤집힌다.

방문진 총원은 9명으로 여권 인사 3명, 야권 인사가 6명이었는데 임 이사의 사퇴로 인해 일시적으로 여 2대 야 6이 됐다.

아울러 방통위는 야권 추천 인사인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 절차를 추진 중인데, 이들의 자리를 여권 인사가 채우면 여 5대 야 4 구도로 바뀌게 된다.

/ 김희성 기자

## 김현숙 여가부 장관, 챔버리 일일브리핑 취소



김현숙 여가부 장관

김 장관은 전날까지 새만금에서 매일 브리핑을 진행해왔다.

청소년 정책 주무부처 장관으로 이번 챔버리 대회를 준비해온 김 장관에 대해서는 챔버리 부실 운영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챔버리 영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의혹에 대해 “경미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라고 말해 비판을 받았으며 전날은 챔버리 ‘조기 철수 사태’와 관련 “한국의 위기 대응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시점”이라고 밝힌 하기도 했다. / 김강우 기자

## 지속가능한 내일의 에너지를 꿈꿉니다

### GS 칼텍스 올레핀 생산시설(MFC) 준공

GS칼텍스는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올레핀 생산시설(MFC)을 준공하여 연간 에틸렌 75만t, 폴리에틸렌 50만t의 생산능력을 갖춘 석유화학 분야에서도 세계적 기업으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정유사업에 더해 석유화학사업, 친환경 에너지, 차원 재활용까지 포함하는 종합에너지 기업으로서 지속가능한 미래성장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MFC(Mixed Feed Cracker) 공정이란?

석유화학사의 주력 원료인 나프타는 물론 정유 공정에서 생산되는 LPG, 부생가스 등 다양한 유분을 원료로 사용하여 에틸렌, 프로필렌, BTX 등의 기초 석유화학 제품으로 전환하는 고도의 고부가가치 공정입니다.

기존 고도화 시설에서 발생하는 석유정제가스를 원료로 사용할 수 있어 동일 생산 능력을 가진 석유화학 시설 대비 에너지 사용량을 약 10% 줄일 수 있으며, 나프타 및 석유정제가스를 원료로 활용하여 수소를 부가적으로 생산할 수 있어 기존 석유화학의 수소 생산을 대체해 LNG 사용량을 줄여 연간 총 7.6만t의 탄소배출 저감이 가능하게 됩니다.

## ‘광복절 특사’ 심사 시작…국정농단 관련자들 사면되나

### 경제계 최지성·장충기, 정치권 안종범·홍완선 등 거론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특별사면인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가리기 위한 사전 심사가 9일 열렸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사면위)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심사 중이다.

사면위는 위원장인 한동훈 장관을 비롯해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4명과 교수·변호사 등 위촉직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사면은 헌법에 규정된 절차이고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라며 “사면심사위원회가 잘 결정할 거라 생각한다. 법무부 장관이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사면위는 이날 특사·복권 건의 대상자

를 선정해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복권 대상자가 최종 결정된다.

법조계와 재계 안팎에서는 지난 신년 특사에서 배제된 경제인들이 대거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옮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이 주로 사면됐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최지성(72)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69) 전 미래전략실 차장이 특사 대상자로 거론된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2021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가 지난해 3월 가석방됐다.

이들과 함께 실형이 확정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021년 8월 가석방됐다가 지난해 광복절 특사로 복권된 바 있다.

그 밖의 재계 인사 가운데에는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특사 가능성에 언급된다.

정치권에서는 안종범(64)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62)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홍완선(67)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사면·복권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여권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김태우(48) 전 서울 강서구청장의 사면 가능성도 언급된다.

야권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의 사면 가능성도 점치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형을 확정받은 정 전 교수는 2024년 6월 만기 출소한다.

/ 이호준 기자

# 검찰, '공정위 조사 방해' 화물연대 기소…조직 성격 쟁점

화물연대 “노동조합” vs 공정위 “사업자단체” 주장 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지난해 종파업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9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화물연대를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2~6일 실시한 부당공동행위 현장 조사에서 조사공무원들의 사무실 진입을 저지해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2021년과 지난해 집단 운송 거부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에 운송 거부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으나,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건물 입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

구가 봉쇄되고 화물연대가 조사를 거부해 불발됐다.

이후 공정위는 “조직 차원에서 (조사 거부·방해)가 결

정·실행됐으며 이에 따라 공정위의 원활한 조사 진행이 방해됐다”며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도 조사 방해 혐의로 함께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이 위원장이 직접 결정·지시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사건은 공정위 단계부터 화물연대의 조직 성격을 어떻게 볼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화물연대는 자신들이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 이므로 공정위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고발결정서에서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적시해 검찰에 넘겼다.



## 법원 “장시호 태블릿PC” 2심 판결까지 최서원에 반환 보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7)씨가 박근

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 당시 박영수 특별 검사팀에 제출된 태블릿PC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내 승소했으나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이세라 부장판사)는 2심 판결 때까지 태블릿PC 반환을 보류해 달라며 국가가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최근 받아들였다.

이 태블릿PC는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2017년 1월 특검팀에 임의 제출한 것으로, 최씨는 태블릿PC를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지난달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태블릿PC의 소유자는 자신이 아니라는 주장하는 최씨는 실제로 자신이 사용했는지를 증명하고 ‘작성설’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태블릿PC를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1심 재판부는 최씨가 태블릿PC를 직접 구입해 사용했던 소유자임이 증명됐다면 최씨가 반환 청구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최씨는 태블릿PC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지만 정부는 지난달 28일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2심 판결까지 태블릿PC 반환을 보류해 달라는 취지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최씨는 태블릿PC를 일단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항소심 판결을 받게 됐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태블릿PC는 한 대 더 있다. 수사 당시 JTBC 기자가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한 것으로 재판에 증거로 사용돼 현재도 검

찰이 보관하고 있다.

최씨는 이 ‘JTBC 태블릿PC’도 돌려달라고 소송을 내 지난해 9월 1심에서 승소했으나 역시 강제집행정지가 인용돼 돌려받지 못했으며 이달 25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최씨는 이 태블릿PC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 이철웅 기자

## 영국 스카우트 대원, 관광 중 핸드폰 분실…경찰이 찾아줘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캠버리 대회에 참가했다가 조기 퇴영한 영국 스카우트 대원이 관광 중 분실한 휴대전화를 경찰이 찾아준 사실이 알려졌다.

8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3시 50분께 3000번 직행버스(강남~호매실)를 모는 한 버스 기사가 “스카우트 복장의 외국인 여성이 탑승했던 자리에서 스마트폰을 습득했다”고 경찰서를 찾아와 신고했다. 분실물로 접수된 스마트폰은 애플사의 아이폰으로, 이미 전화기의 주인이 분실 신고를 한 상태여서 잠금화면 위로 연락할 수 있는 번호가 떠 있었다.

생활안전과 소속 기다희 경사와, 김홍엽 경장은 이 번호가 영국의 국제번호 ‘44’로 시작한다는 점에 미뤄 영국 스카우트 대표단 소속의 학생이 잊어버렸을 것으로 추정했다. A군은 같은 날 오후 6시 50분께 친구들과 함께 수원서부서를 찾아 김 경장으로부터 스마트폰을 돌려받았다.

/ 백경문 기자

## 해병대 수사단장 “채상병 사망, 대통령 지시대로 엄정 수사했다”

실명 입장문…“장관에 대면보고했지만 경찰 이첩 대기 명령받은 적 없어”

군, 기밀유출·직권남용 혐의 추가하고 언론 법적대응 예고…11일 소환조사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조사하다가 보직해임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9일 “사건발생 초기 윤석열 대통령께서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셨고, 저는 대통령의 지시를 적극 수명했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이날 변호인 김경호 변호사를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수사 결과와 사단장 등 혐의자 8명의 업무상 과실을 확인했고,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했다”며 “앞으로 제게 발생되는 일들에 대해 시종일관 정정당당하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령은 오는 11일 국방부 검찰단의 2차 조사를 받는다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박 대령이 “해병대 명예를 지키기 위해 지휘부에 고개 숙이지 않았다. 법과 원칙에 따라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에 이첩할 자료를 수령해버리면 유족부터 반발할 것”이라며 “그러면 모든 비난이 해병대를 향할 텐데, 그런 해병대를 두

겠다는 유가족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며 “지난 30년 가까운 해병대 생활을 하면서 군인으로서 명예를 목숨처럼 생각하고 항상 정정당당하게 처신하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 해병대는 정의와 정직을 목숨처럼 생각한다. 그런 해병대 정신을 실천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박 대령은 “현재 저는 국방부 검찰단에 ‘집단항명의 수괴’로 혐의를 입건돼 있고, 해병대 수사단장에서는 보직해임됐다”며 “앞으로 제게 발생되는 일들에 대해 시종일관 정정당당하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령은 오는 11일 국방부 검찰단의 2차 조사를 받는다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박 대령이 “해병대 명예를 지키기 위해 지휘부에 고개 숙이지 않았다. 법과 원칙에 따라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에 이첩할 자료를 수령해버리면 유족부터 반발할 것”이라며 “그러면 모든 비난이 해병대를 향할 텐데, 그런 해병대를 두

고 볼 수 없다”고 박 대령이 말했다고 덧붙였다.

군은 채 상병 사건 조사 결과를 경북 경찰청에 넘기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고 사건을 이첩한 박 대령을 보직해임하고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박 대령에게 사건 이첩 보류 명령을 통보한 사람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라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유 법무관리관은 박 대령과 5차례 이상 통화하면서 ‘최초 보고서에서 죄명을 빼라, 혐의자 및 혐의사실을 빼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자료에는 채 상병이 소속된 해병대 1사단 임성근 사단장 등 8명에 과실지사 혐의 등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박 대령은 유 법무관리관에게 “수사 결과 사단장 등에 과실지사 혐의가 있다는 것을 유가족에게 이미 설명했는데, 언제 와서 사단장 등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는 것이 문제 되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고 한다.

/ 송진영 기자

/ 김강우 기자

**aT** 가 함께 합니다

지속 가능한 우리 농어업!  
잘사는 우리 농어업인!



보다 나은 우리 농식품

국민의 내일을 위한 aT 혁신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대표전화 061-931-1114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 주북 中대사, ‘대북제재 대상’ 만수대창작사 방문



평양 만수대창작사 방문한 왕야진 중국대사(앞줄 왼쪽에서 여섯번째)

북한 주재 중국대사가 북한의 대표적인 미술 창작 기관이자 유엔의 제재 대상인 만수대창작사를 찾아 양국 예술가들의 교류·협력 확대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9일 주(駐)북한 중국대사관에 따르면 왕야진 대사는 전날 중국 외교관들을 대동하고 평양 평천구에 있는 만수대창작사를 방문했다.

북한 측에선 김성민 조선미술가동맹 중앙위원장 겸 만수대창작사 부사장과 김현희 만수대창작사 대외사무처장, 윤진명 외무성 아주1국 과장 등이 나와 왕 대사 일행을 맞았다.

김성민 부사장은 “만수대창작사가 2년 가까이 북중우의 탐 내부 개조 공사에 참여해 조중(북중) 우의의 전승·발전을 위해 공헌할 수 있었던 점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중국 예술기관과 더 많은 교류·협력을 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중국대사관은 전했다.

왕 대사는 만수대창작사 측에 감사를 전하면서 “중조(중북) 미술은 각자의 특색을 갖고 있고, 교류의 역사가 깊다”며 “양국 예술가들이 한층 더 교류·협력하고, 양국 인민의 마음 소통 촉진과 우호 감정 증진을 위해 더욱 큰 역할을 발휘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1958년(혹은 1959년) 11월 문을 연 만수대창작사는 북한의 대표적 미술 창작 기지로, 해외에 작품을 판매해 외화를 벌어들이는 역할도 해왔다.

총면적 7만m<sup>2</sup>(2만1천175평)에 유화·조선화·조소·도예·자수·목각 등 10여개의 창작 부문이 설치돼있고, 소속 예술가는 약 1천명이다. 평양에 있는 주체사상탑이나 개선문, 천리마등상 등을 물론 중국이나 아프리카 국가 등에 대형 동상을 제작해주기도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016년 11월 북한의 핵개발 ‘돈줄’이 될 수 있다며 만수대창작사의 해외 조형물 수출을 금지했고, 이듬해에는 만수대창작사의 해외 사업을 맡은 ‘만수대해외개발회사그룹’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한국과 미국 정부도 2016년 12월 만수대 창작사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중국은 2017년 12월 안보리 대북제재안까지는 찬성 표를 던졌지만, 4년여 지난해 5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응한 추가 제재 결의안은 거부권을 행사해 부결시켰다. 이어 10월 안보리 회의에선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과 민생 문제를 고려해 제재를 완화하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중국의 이런 행보를 두고 고조된 미중 경쟁 상황이 ‘헬 맹’ 북한과 더 강한 밀착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 송원기 기자

## “러, 구조대원들 겨냥해 이중 미사일 공격”…우크라 ‘분노’

영 가디언 “포크로우스크 아파트 등에 40분 시차로 미사일 2발”



러시아의 미사일 공습으로 파괴된 우크라이나 포크로우스크 아파트 건물

이달 7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동부 도시 포크로우스크 미사일 공습은 ‘더블 텁’(시간차 이중 공격) 방식으로 아파트와 호텔 등 민간 건물을 타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두고 더블 텁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더블 텁 공격은 1차 공격 후 구조대원이나 의료진 등이 현장에 출동해 있을 시점에 또다시 두 번째 공격을 가해 피해를 키우는 공격 방식이다.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이날 미사일 공습으로 12채의 다층 건물이 파손됐다고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공습 직후 “러시아가 일반 주거용 건물을 공격했다면서, 마지막 층이 파괴된 전형적인 옛 소련식 5층 아파트 건물

으로 70km, 최전선에선 48km 떨어져 있다. 미사일 공격은 오후 7시 15분과 7시 52분 두 차례에 걸쳐 약 40분의 시차를

당시 현장에 기자들이 거의 없어 피해는 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내무부는 이날 공습으로 민간인 5명·구조대원 1명·군인 1명 등 모두 7명이 사망하고, 민간인 39명·경찰 31명·구조대원 7명·군인 4명 등 81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1차 공격 후 구조 작업을 진행하거나 돋기 위해 서둘러 현장으로 몰려갔던 사람들이 큰 피해를 봤다.

포크로우스크 인근 도시 병원 원장 세르히 리젠포는 “중상자들은 대부분 미사일 파편이 신체 여러 부위에 낸 다발상 외상을 입었는데, 한 환자는 파편이 두개골 깊숙이 박혀 신경외과 의사들이 몇시간 동안 수술을 해야 했다”고 전했다.

이반 비히우스키 우크라이나 경찰청장은 “모두가 첫 공격 이후 건물 잔해에 묻힌 사람들을 구조하려 애쓰고 있었다. 그런데 적은 의도적으로 두 번째 공격을 가했다”고 분노했다.

아파트 건물과 함께 미사일 공격을 받은 인근의 ‘드루즈바’ 호텔과 ‘코클레오네’ 피자 가게는 평소 최전선 전황을 취재하던 BBC 방송, 파이낸셜 타임스 등의 서방 언론사 특파원들이 자주 찾던 곳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날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이 외국 언론사 기자들도 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은 8일 러시아 측에 도네츠크 지역의 우크라이나군 수와 군용기의 비행경로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오던 포크로우스크 거주 여성 4명으로 이루어진 스파이망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문희철 기자



8일(현지시간) 뉴멕시코주 찾은 바이든

## 바이든, 한미일 정상회의 앞두고 연일 “한일화해” 언급

### 한미일 안보공조 강화로 연결된 한일관계 개선 차적으로 부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18일(이하 현지시간)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연일 한국과 일본의 화해를 거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8일 미국 뉴멕시코주에서 열린 민주당 정치자금 모금 행사에서 “나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국, 일본과 함께 이벤트를 개최한다”며 “그들(한일)은 화해를 했다”고 말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메인주(州) 프리포트에서 열린 대선 관련 모금 행사에서 “그들(한국과 일본)은 2차 대전으로부터 화해했다. 근본적인 변화”라고 언급한 바 있다.

내년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하기로 한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주요 외교 성과를 부각하기 위해 한미일 안보공조

강화로 연결된 한일 화해를 잇달아 거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나란히 동북아의 중요한 미국 동맹국 이면서 서로 역사적 양금이 있는 한일 간의 최근 관계 개선에 자신의 지분이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캘리포니아주(州) 방문 중 로스가토스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등과 관련한 외교 성과를 내세우면서 “우리는 동맹국들을 다시 화해시키기 위해, 세계를 통합시키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했다. 동맹국을 화해시키는 일을 이미 해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나는 일본의 관여를 끌어내 일본의 한국에 대한 태도를, 국방 예산과 유럽에서의 관여와 관련한 태도를 바꾸도록 노력하려고 했다”며 “이런 일은 예전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라고 주장했다.

/ 권희경 기자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 일상의 금융에서 일생의 금융으로

원하는 삶을 위해  
견뎌야 하는 오늘의 무게도

농협금융과 함께 나누면 더 가벼워집니다

당신의 평범한 일상이 모여서  
특별한 일생이 될 수 있도록

금융의 모든 순간  
함께하는 100년 농협



World EXPO 2030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NH농협금융이 응원합니다

NH농협금융

NH농협은행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 NH투자증권 NH-Amundi자산운용 NH농협캐피탈 NH자산운행 NH농협리조트운용 NH벤처투자 NH농협카드

## 미스 인도네시아 대회, 성추행으로 얼룩…“강제 알몸검사”

### 참가자들, 성추행 혐의로 주최 측 고소

미스 유니버스 인도네시아 대회에 출전했던 참가자들이 예정에 없던 알몸 검사를 받고 사진도 찍혔다며 대회 관계자들을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9일 콤파스TV 등에 따르면 지난 3일까지 자카르타에서 열린 이번 대회 참가자 6명은 대회 관계자들을 성희롱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인들을 대리하는 변호사 멜리사 앙그라니는 미스 유니버스 인도네시아 라이선스 소유자인 카펠라 스와스티카 카리아의 관계자들이 대회 이를 전 결선 진출자 30명을 상대로 몸에 흉터나 셀룰라이트, 문신 등이 있는지를 검사해야 한다며 예고에 없던 알몸 검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앙그라니 변호사는 “사전에 공지되지 않은 일정이었다”며 참가자들은 남성을 포함해 20명 이상이 있는 공간에서 속옷

까지 모두 벗고 신체검사를 받아야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들은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사진을 찍히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신원을 공개하지 않은 한 참가자는 콤파스TV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다른 사람이 훔쳐보는 것 같아 매우 불편했고 혼란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스 유니버스 조직위원회(MUO)는 성명을 통해 해당 사건 혐의를 인정했고 자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MUO 측은 “성적 학대와 부적절한 행위의 혐의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여성의 안전이 미스 유니버스 조직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고소장을 접수한 자카르타 경찰 측은 고소장을 근거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 김유정 기자

# SK바사, 노바백스 코로나19 변이대응 백신 완제품 만든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미국 바이오 기업 노바백스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대응 백신의 완제품을 생산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기존에 양사가 체결한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엔데믹 상황에 맞춰 변경·확장해 체결한 것이다. 변경된 계약에 따라 SK바사는 새롭게 개발될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대응 백신의 원액과 면역증강제를 안동 L하우스에서 사전충전주사(프리 필드시린지) 제형의 완제품으로 완성해 공급할 예정이다.

SK바사는 국내에서 해당 제품의 공급과 상업화 생산에 대한 독점 권리를, 태국과 베트남에선 비독점 권리를 갖게 된다.

이와 함께 SK바사는 노바백스 주식 650만주를 취득하기로 했다. 노바백스와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왼쪽)과 존 C. 제이콥스 노바백스 사장이 지분 인수와 협력 확대를 결정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엔데믹 기간 맷은 위탁생산 계약이 종료되면서 새로운 전략적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SK바사는 설명했다.

SK바사는 자체 백신 개발과 글로벌 개발 백신 공급의 투트랙 전략으로 방역 상황에 대응하면서 노바백스와 협업 관계를 바탕으로 해외 시장에 지속해서 진출할

방침이다.

또 노바백스의 면역증강제 '매트릭스 M'(Matrix M)을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존 C.제이콥스 노바백스 사장은 "이번 전략적 투자와 중장기적 협력에 대한 약속은 지금까지 맺어온 양사 협력의 산물이다. 양사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에 대한 자신감"이라며 "인류 건강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속해서 추구하며, 상업화와 전략적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협력을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은 "전 세계 소수 기업만이 개발에 성공한 코로나19 백신을 자체 보유한 두 회사의 전략적 지분 투자와 협력은 놀라운 시너지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 한종현 기자



전원개발추진위서 발언하는 강경성 산업부 2차관

## '탈원전 매출급감' 원전 중소·중견기업에 1천500억원 금융지원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원전 중소·중견기업들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1천500억원 규모의 '특별금융프로그램'을 추가로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지난 3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은행,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에너빌리티 간 체결한 총 2천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 협약에 따른 것이다. 산업은행, 한수원, 두산에너빌리티가 2천억원을 공동으로 조성했다.

지난 3월 31일 500억원을 1차 출시했고, 이번에 1천500억원을 추가로 시행한다. 프로그램은 자금 지원 규모와 금리, 대출 심사, 대출한도 측면에서 기존 금융 상품에 비해 실질적인 자금 지원 효과를 대폭 높였다.

산업부는 이번 2차 출시로 재원이 대폭 확대돼 원전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하고 원전 생태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연내 원전 생태계를 완전히 정상화하기 위해 일감 지원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 정순찬 기자

## 특허청, 동대문 짹통시장서 200억원 상당 위조 명품브랜드 압수

### "차량번호판 가리고, 태블릿 PC로 은밀 거래"…판매 수법 진화

일명 서울 동대문 짹통시장에서 200억원 상당의 위조 명품브랜드를 판매한 도소매업자들이 상표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은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명품브랜드 위조 상품을 판매한 A(45)씨 등 도소매업자 6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A씨 등 도소매업자들은 속칭 '노란천막·짜통시장'으로 불리는 새빛시장 일원 노점에서 지갑·가방 등 위조 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표경찰은 지난달 20~21일 집중 단속을 벌여 루이 뷔통·샤넬·구찌·에르메스·루레스 등 41개 브랜드의 지갑·가방·벨트·시계·선글라스·목걸이 등 14개 품목 1천230점(정품가액 200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A씨 등은 상표법 준수 등을 조건으로 서울 종구청에서 새빛시장 점용허가를 받은 노점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허가조건과 다른 위조 상품 판매 등 불법영업을 해오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됐다.

이들은 수단 단속을 피하기 위해 노란천막 외측 도로에 승합차들을 주차해 놓고 차량번호판을 검은 천으로 가리는 수법으로 외부 노출을 피하고, 노란천막 안쪽 인도를 이용해 위조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조 상품 판매 수법도 진화했다. 예전에는 명품브랜드 위조 상품을 노점에 진열한 채 영업행위를 했다면 최근에는 노점에 상표 없는 위조 상품 견본을 진열한 뒤 손님에게 태블릿PC 등을 활용해 판매상품 사진을 보여준 후 승합차에 보관한 위조 상품을 은밀하게 건네는 수법으로 다양화됐다.

상표경찰은 이번에 3개월 이상 주적해 A씨 등 위조 상품 판매자의 인적 사항·소유재산 등을 특정한 뒤 5개 업체도 동시에 압수영장을 집행해 판매 노점·창고로 활용되는 차량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 김성호 기자

상표경찰은 이번에 3개월 이상 주적해 A씨 등 위조 상품 판매자의 인적 사항·소유재산 등을 특정한 뒤 5개 업체도 동시에 압수영장을 집행해 판매 노점·창고로 활용되는 차량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또 탈원전 기간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

저탄소 친환경 기업

사람중심 가치창출 기업

투명하고 신뢰받는 기업

ESG 경영 선도 기업

## Action for Positive Change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연결하는 혁신적인 금융투자 파트너

교보증권이 함께합니다

2021 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 우수IB 선정  
2022 KRCA 최초발간부문 우수상 수상  
2023 KG제로인 대한민국 펀드아워즈 투자자보호 부문 1위

교보증권은 변화하는 세상에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로 고객가치를 향상시키고 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듭니다.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증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주식거래 시 온라인 매수수수료는 0.1492%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23호-02637호(2023.07.24 ~ 2026.07.23)

## 삼성전자, '성능 2배 ↑' 8세대V낸드 기반 데이터센터용 SSD 첫선

### '플래시 메모리 서밋'서 차세대 메모리 솔루션 대거 선보여



'플래시 메모리 서밋 2023' 삼성전자 부스

삼성전자가 업계 최고 성능의 8세대 V낸드 기반 데이터센터용 SSD(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를 포함한 차세대 메모리 솔루션을 대거 선보였다.

삼성전자는 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라라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플래시 메모리 서밋 2023'에서 PCIe 5.0 데이터센터용 SSD 'PM9D3a'를 포함한 차세대 스토리지 솔루션을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번 행사에서 현재 서버 스토리지 시장이 당면한 문제를 전력과

공간, 성능 등 3가지로 구분하고 이를 해결할 핵심 제품과 기술을 소개했다.

특히 이번에 처음 선보인 PM9D3a는 8 채널 컨트롤러 기반 PCIe 5.0 데이터센터용 SSD로, 연속 읽기 성능을 이전 세대 제품인 PM9A3 대비 최대 2.3배 개선했고 임의 쓰기 성능도 2배 이상 개선했다.

PM9D3a는 최대 1만 2천MB/s(초당 메가바이트), 6천 800MB/s의 연속 읽기·쓰기 속도와 1천 700K IOPS(초당 입출력 횟수), 400K IOPS의 임의 읽기·쓰기 속도를 제공한다. 전력 효율은 전 세대 제품 대비

약 60% 향상됐으며, 고온 다습한 환경평가 기준(JESD22-A101D) 700시간 보증을 통해 다양한 데이터센터 환경에서 안정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

삼성전자는 PM9D3a에 한층 강화된 보안 솔루션(SPD)을 적용해 장치의 인증과 펌웨어 변조 탐지 기능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PM9D3a 7.68테라바이트(TB), 15.36TB 제품을 2.5인치 규격으로 연내 양산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중 3.84TB 이하의 제품부터 최대 30.72TB 제품까지 다양한 품팩터와 라인업을 선보일 계획이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버에 적용되는 'PM1743'과 QLC(Quadruple Level Cell)

낸드 기반 256TB SSD도 선보였다. PM1743은 작년 플래시 메모리 서밋에서 처음 공개된 제품으로, 업계 최초로 PCIe 5.0 인터페이스를 적용해 이전 모델 대비 약 2배의 전력 효율을 달성했다.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 이준영 기자

## 더현대 서울서 세번째 'K-컬처 릴레이 팝업'…한국방문 해 홍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오는 10~23일 여의도 더현대 서울 백화점에서 세 번째 'K-컬처 릴레이 팝업'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팝업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한국의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해 'THE MOVING SEOUL(더 무빙 서울)'을 주제로 진행되며 K-팝, K-페



해 한국의 매력을 알린다. 행사에는 다국적 보이그룹 제로베이스와 화가 김현정, 주류 브랜드 맵시 막걸리 등이 참여한다.

관광공사는 팝업 방문자에게 다양한 시음품과 굿즈를 제공하며 한국방문의 해와 K-컬처를 홍보할 계획이다.

관광공사는 하반기에도 민간 협업 이벤트를 지속해 추진할 계획이다.

/ 양희진 기자

# 서울시 잼버리 3천여명 활동 시작…K팝·E스포츠 한류관광도

## 대학기숙사·민간 연수원에 지원단…오세훈, 홍대·성대서 직접 점검

서울시가 태풍 '카눈'의 한반도 북상으로 조기 퇴영을 결정한 '새만금 세제스카 우트잼버리' 참가자 3천여명을 받아들여 잼버리 시즌2에 나선다.

숙소를 마련하고 서울의 자연 자원과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는 8일 정부와 협의해 10개 자치구의 13개 시설에서 9개국 대원과 관계자 3천210여명을 맞이했다.

서울시립대와 고려대, 육군사관학교 등 대학 기숙사 12곳에 3천90명을 수용하고 민간기업 연수원 1곳에 120명의 잠자리를 마련했다. 숙박 기간은 잼버리 폐영일인 12일까지다.

대원들이 한 공간에서 단체생활을 할 수 있고 사위실 등 부대시설을 갖춘 곳을 우선 제공해 달라는 정부 요청에 따라 여름방학에 비어있는 대학 기숙사를 중심으로 장소를 선정했다.

시설마다 '전담지원단'을 파견해 대원의 안전과 건강을 관리한다. 지원단장(4급)과 부단장(5급) 관리하에 운영총괄반(10명)과 의료지원반(2명)이 파견돼 24시간 근무하면서 입소자 관리, 물품 및 식사 지원, 문화·관광 프로그램 안내와 의료 지원 등의 역할을 맡는다.

모든 숙소에 보건소·시립병원 의료진과 구급차도 배치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흥의대와 성균관대 기숙사를 찾아 직접 상태를 점검했다. 식당과 세탁시설 등을 둘러본 오 시장은 기숙사 관계자에게 잼버리 참가자들이



성균관대 기숙사에서 스카우트 대원을 만난 오세훈 서울시장

머무는 동안 위생·식단 등 모든 부분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이들이 즐길 문화관광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5만여명이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프로그램을 확충해 스카우트 대원들이 부족함 없이 관광을 즐기게 할 방침이다. 시청 앞 서울광장은 각국에서 온 잼버리 대원이 자유롭게 교류하는 '거점'으로 활용된다. 커뮤니티 부스를 운영해 새만금에서 못다 한 교류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돋는다.

서울광장을 기점으로 청와대·경복궁·인사동·대학로 등 주요 관광지를 오가는 순환형 셔틀버스도 마련한다. 9~13일,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한강과 남산 등 서울의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확대한다. 인왕산과 북악산 트래킹을 신설하고 뚝섬·대치·강

서 인암암벽장에서 암벽등반 프로그램도 새로 마련한다.

태풍과 폭염을 고려해 실내에서 즐길 행사도 10일부터 운영된다. 서울시는 K팝과 K-뷰티, K-푸드 등 한류 체험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마련했다.

마포구 합정동 YGX 본사에서는 K팝 댄스 클래스가 열리고 종로구 청진동 롤파크에서는 '리그 오브 레전드(LOL)' 게임 팬을 위한 투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K-뷰티의 산실인 아모레퍼시픽 본사 담방, 인사동 '김치 박물관' 김치간을 도슨트와 함께 둘러보는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서울에 체류하는 잼버리 참가단은 숙소에 파견된 요원을 통해 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잼버리 대원들이 자유 여행도 충분히 즐기도록 지원한다. 서울 곳곳을 자유롭게 둘러보는 서울관광패스(DSP)는

숙소 별로 신청받아 할인 판매한다. 대원들은 5만원(24시간권)~9만원(72시간권) 수준인 패스를 30%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한강유람선, 서울시티투어 버스도 최대 50%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다. 모든 대원에게 서울관광 가이드북과 지도를 제공한다. 명동·홍대 등 주요 관광지에서 활동하는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요원 근무 시간은 오후 9시까지로 조정한다.

서울시립미술관·역사박물관·공예박물관 등 서울 대표 문화시설 9곳은 야간 개장한다. 기존에 오후 6시까지 운영하던 시설을 오후 9~10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문화체험 프로그램 및 시설 이용과 관련해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120다산센터 외국어 상담 서비스(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몽골어 등)를 통해 필요할 때 바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서울시 외국어 SNS를 통해서도 안내한다. 시는 서울에서 머무는 스카우트 대원들의 안전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김의승 행정1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서울시 잼버리 대책본부'를 꾸렸다.

시설별 지원인력 배치, 의료 인력 및 물품 확보, 관광·문화체험 헬프데스크 운영 등 행사 종료 시까지 종합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체험 프로그램 장소와 방문시설에는 자치구 보건소 의료인력도 배치해 온열질환 등 참가자들의 건강도 관리한다.

/ 송원기 기자



일산대교 무료 통행 재개

## '일산대교 무료 통행' 법정 다툼 장기화 전망

### 지난해 11월 1심 판결 뒤 지난달에야 2심 1차 변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사퇴 전 마지막 재판인 '일산대교 무료 통행을 위한 공익처분'으로 촉발된 법정 다툼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가 항소해 수원고법에서 진행 중인 일산대교 민간 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소송 2심 재판은 지난달 1차 변론이 진행됐다.

2차 변론은 다음 달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에 대한 판결이 해를 넘겨 나올 가능성이 크다.

앞서 경기도는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사퇴 직전인 2021년 10월 26일 일산대교의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내렸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주)

는 경기도의 공익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1심 재판은 맡은 수원지법은 지난해 11월 9일 일산대교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경기도가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항소 당시 경기도는 인수 협상도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나 일산대교 측이 인수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서 경기도와 일산대교 측간 갈등은 소송이 마무리돼야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경기도나 일산대교 측 모두 소송에서 물리나기 어려운 형국이어서 소송은 대법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관계자는 "2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소송은 대법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본다"며 "대법원까지 간다고 보면 내년에도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곽준호 기자

## 안산시-안산대, 해양레저 분야 청년인력 양성…일자리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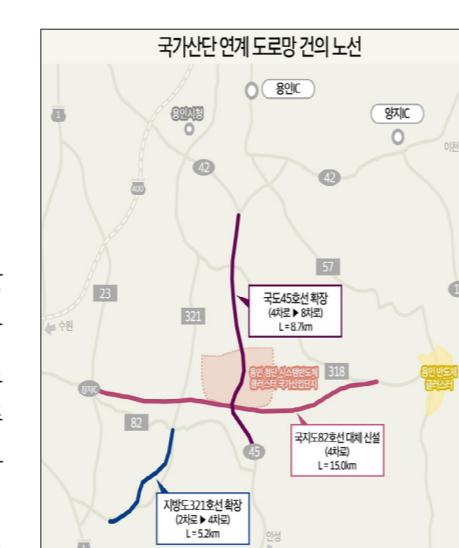


보 교류 ▲ 특화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협력 ▲ 각 기관의 이미지 제고 및 해양레저산업 발전을 위한 홍보지원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해양레저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장·실무 중심형 교육과정 개발 등으로 청년 중심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에게 지역 일자리를 발굴해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레저스포츠케어과를 둔 안산대는 재활 운동, 레저와 스포츠 종목 지도 등의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안산시가 서해안 해양레저산업 분야의 성공적인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안산대와 함께 상호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신유정 기자



국지도 82호선 대체 도로는 2042년이 되면 기존 노선의 일일 통행량 4만여대를 대체·분산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지난달부터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 LH 담당자를 만나 이들 3개 노선의 필요성과 효과를 설명하고, 국가산단 연계 도로체계 구축 계획 수립 시 꼭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 노승만 기자

## 지구를 위한 그린플루언서 SK geo centric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SK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더나은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한 행동,  
World EXPO 2030 BUSAN의 시작! WAVE



### 작품명 폐플라스틱의 재탄생

플라스틱의 순환은 지구의 순환이니까  
SK지오센트릭은  
대규모 재활용 단지를 조성하여  
버려지는 플라스틱을 새로운 가치로 만듭니다

Hi SK지오센트릭의 그린픽쳐



#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충남 등 5개 시·도 머리 맞대

## 충남서 간담회 열려…기본공급 약관 개정 등 과제 넘어야

충남도와 부산·인천·강원·경북 등 5개 시·도가 실효성 있는 지역 거리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9일 충남도에 따르면 전날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각 시도와 충남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가 열렸다.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내년 6월 시행되는데, 이에 앞서 풀어야 할 과제들을 논의하는 자리다.

지역 거리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은 충남을 비롯한 전력 자립도가 높은 지역은 전기료 감면 효과 등을 받을 수 있어 긍정적이다.

그러나 지역 거리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위해서는 전기 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의 기본 공급약관 개정과 산업통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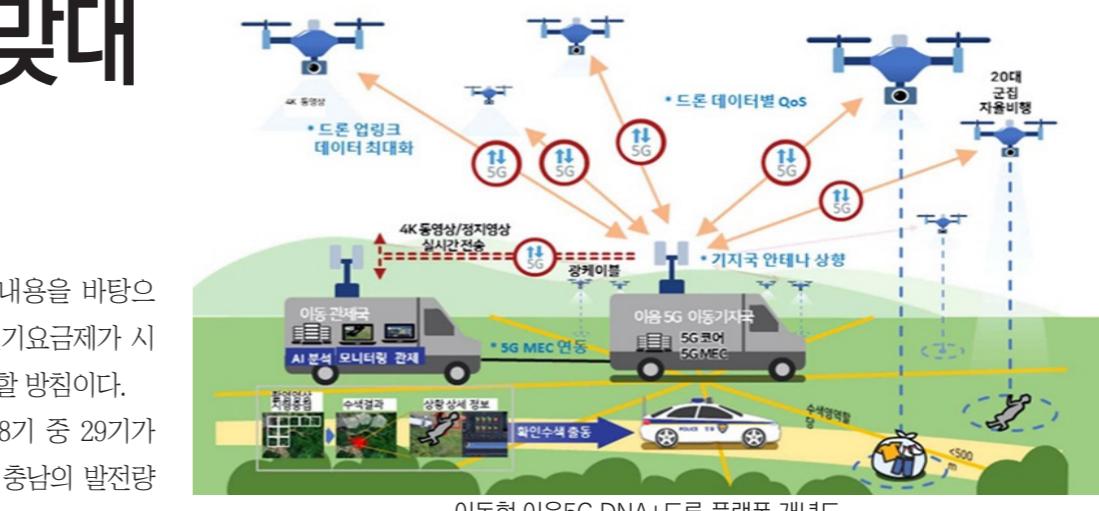


지난 8일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5개 시·도 간담회

자원부의 인기를 받아야 한다.

또 지역별 견해 차이와 사회적 수용성, 도입 방법 등도 해결해야 한다. 이 자리에서 신동호 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

은 영국, 호주 등 해외사례를 소개하며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송전용량과 거리에 비례한 권역 구분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동형 이음5G DNA+드론 플랫폼 개념도

## 공주에 5G 적용 상공망 통신시스템 구축

### “드론도시 육성 도움”

충남 공주에 5G 이동통신을 드론 통신에 적용한 상공망 통신시스템 시험시설(테스트 배드)이 구축된다.

9일 공주시에 따르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드론 서비스 기업 기이온은 금강 공주보 인근에 드론 데이터 획득부터 실시간 전송, 인공지능(AI) 분석까지 가능한 DNA+드론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 드론 서비스를 개발하는 시험시설을 오는 12월까지 구축한다. 사업비는 18억원이다.

5세대 이동통신 특화망(이음5G)은 이동통신사가 아닌 기업·기관이 건물이나 공장 등에 필요한 5G 주파수를 할당받아 현장에 활용하는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 서비스가 가능한 통신서비스다.

드론은 조종사의 가시권 범위 내에서만 비행이 가능하다 보니 비행 시 통신 성능 저하, 홀링 영상 전송용량 한계, 통신 음영지역 발생 등의 문제를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언제 어디서나 드론 통신

이 가능한 기술 개발이 진행돼 왔다. 이음5G를 활용한 드론 전용 5G 상공망 통신 시스템이 대표적이다.

이 시스템은 공중 지향 안테나로 드론 비행 고도에 최적화된 통신 품질을 제공함으로써 드론 데이터 전송을 위한 업 링크 용량을 최대로 확보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5G 코어 시스템에 DNA+드론 플랫폼을 전진 배치해 더 빠른 지능화 드론 서비스도 가능하다.

최원철 시장은 “이 사업은 시가 역점 추진하는 드론 특화도시 육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6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공항공사, 공주대학교, 공주경찰서, 공주소방서, 한국드론산업협회 등 11개 기관단체와 협약하고 ‘공주형 드론특화도시’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 운영 중이다.

/ 최병훈 기자

## “안부 챙겨줘 위안받고 안심돼” 동해시, 우유 배달사업 ‘호평’

강원 동해시가 취약계층 어르신 고독사 예방 및 안부 확인을 위한 우유 배달사업이 호평받고 있다.

시는 지난달 심규언 시장과 호용한 사단법인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 이사장, 전창표 헨켈코리아 부사장, 조창웅 동해시니어클럽 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유배달 업무협약식을 하고 배달을 시작했다.

이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이다.

동해시니어클럽 공공이불빨래방 참여 인력이 지난달 24일부터 주 3회, 오전과 오후 조로 나눠 구역별로 멸균우유 2~3개씩 대상자 가구를 방문해 배달하고 있다.

배달 시 우유가 쓰여있는 가정의 경우



동해시, 어르신 안부 확인 우유 배달사업

센터 맞춤형복지팀이 대상자의 안부를 세심히 살피고 있다. 현재 지역 내 만 65세 이상 취약 독거 어르신 50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 신자호 기자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2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원합니다!

LG U+

#고객이야기 #안심로밍 #제로프리미엄



“해외에서는  
마음이 놓여야  
잘 다닐 수 있으니까  
U+안심로밍은 필수죠~”

예전엔 해외 나갈 때 유심만 생각했었는데,  
해외에서 인증 필요할 때 문자가 안 되더라고요.  
그때 당황했던 후로는 꼭 U+안심로밍 해갑니다.

해외에서 사용하는지 모를 만큼 데이터 속도, 품질,  
문자도 완벽하고, 시간대당 기간만 신청하면  
무제한 편하게 쓸 수 있어 좋아요. 공항 갈 때  
신청도 카톡으로 되니까 말 그대로 안심로밍이죠!

‘유플러스 10년 차 고객 김병재님’

이런 생각, 김병재님의  
**WHY  
NOT?**

유플러스 안심로밍

QR코드 스캔하고 김병재님의  
와이너스 스토리 더 보러 가기

## 광주시, 기회 발전 특구 유치 본격화…“광주 모델 개발”

광주시가 정부 새 균형발전 정책인 기회 발전 특구 유치에 나섰다. 광주시는 8일 광주테크노파크에서 기회 발전 특구 추진단 첫 기획 회의를 열었다.

광주시는 정부 동향과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특구 계획 수립과 기업 유치 활동을 총괄하는 추진단, 이를 지원할 실무전담팀(TF)을 운영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공모 중인 사전 조사 지원사업에 광주테크노파크를 주관기관, 지역사업평가단을 참여 기관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할 계획이다.

오는 11월까지 사전 조사를 하고 내년 예산 확보를 통해 관련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기회 발전 특구는 지방 주도의 특구 개발로 개인과 기업의 이전을 촉진하고, 민간 자본을 활용한 지역 균형발전을 추



광주시 기회 발전 특구 추진단

진하는 정책으로 지자체별로 유치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특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을 수립한 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다.

특구로 지정되면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 기업

에 규제 특례,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한다.

배일권 광주시 기회조정실장은 “기회 발전 특구는 기업 유치,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며 “효율적 협업체계 구축으로 광주 모델을 개발하고 대응 전략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 광현주 기자

## 도민은 챈버리 속앓이하는데 전북도의원들 독도견학가려다 취소

취재 시작되자 ‘없던 일로’  
의원 39명 중 절반 신청

피행을 빚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전북도의원의 절반 가까이가 독도로 견학을 떠나려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취소했다.

시기적으로 보면 챈버리의 잇따른 악재로 전북도가 시름 중인 데다 수해 피해 복구가 끝나지 않았는데 지역 상황을 외면하고 견학을 가는 게 적절하냐는 비난 여론이 비등한 깊이에서다.

9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도의원 18명은 오는 14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울릉도와 독도로 견학을 떠날 예정이었다.



빈 챈버리장 바라보는 시민들

목적은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독도에서 애국의 의지를 다지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퍼포먼스를 벌이기 위해 서다. 전체 도의원 39명 중 절반에 가까운 18명이 견학 신청을 했다.

경비는 1인당 40만~50만원 가량이 책정됐다.

하지만 새만금 챈버리가 파행을 빚어 향후 각종 감사와 후폭풍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굳이 이 시기에 견학을 계획한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북도청 한 공무원은 “도의원들이 챈겨야 할 현안이 산적한 이런 상황에서 민생은 뒷전인 처사”라며 “오늘도 공무원들은 챈버리 현장으로 쓰레기를 주우러 간다”고 지적했다.

견학을 주도한 A 의원은 “경북도의회에서 이번 광복절에 독도를 못 간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 전북도의회라도 가서 독도가 일본 대케시마가 아님을 보여주려고 했다”면서 “당초 22명이 신청했는데 4명이 빠졌다”고 해명했다.

그는 연합뉴스의 취재가 시작되자 “절대 놀려 가려는 의도가 아니다”라며 “여론이 그렇다면 일정을 전면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 조규현 기자

KB금융그룹

World EXPO 2030  
BUSAN, KOREA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KB국민은행이 함께 응원합니다

KB스타뱅킹에서 환전하고, 지금 떠나실래요?

## KB외화머니박스

어디든, 언제든, 누구든 KB의 새로운 환전 서비스로  
여행가는 길이 더 쉽고 더 든든해집니다

### KB외화머니박스

KB외화머니박스는 KB스타뱅킹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환전 서비스입니다



KB외화머니박스 바로가기

#### 1 최대 90% 환율 우대

놀라운 환율 혜택은 기본, 원하는 KB국민은행 영업점에서 수령까지!

#### 2 자유로운 보관과 출금

수령점 및 수령일 지정없이 보관, 출금, 되팔기, 선물을 자유롭게!

#### 3 편리한 외화 배달 서비스

환전한 외화 실물도 택배처럼 원하는 장소에서 수령을 편하게!

• 외화 실물 수령 회당 영업점별로 보유 권종이 다를 수 있으니, 필요하신 권종(소액권 등)이 있으신 경우에는 영업점에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원료된 환전 거래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 환전 신청한 금액은 원화로 직접 되팔기 할 수 있으며, 거래 사정의 현찰 피실 때 환율(환전 신청시 적용한 환율우대율 적용됩니다). • 환전 후 미수령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 외화는 예금자보호법 및 이자지급의 대상이 아닙니다. • 미달러(USD)를 제외한 기타 통화를 외화 입출금 계좌에 입금 후 영업점에 방문하여 외화 현금을 출금할 경우 외화현금보관수수료(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합니다.(JPY, EUR: 1.5%/그외통화: 3%) • KB외화머니박스 환전신청은 24시간(토, 일, 공휴일 포함) 가능하나, 온라인 영업일자 전환시간(매일 00:00~00:05) 및 매월 셋째주 일요일 00:00~07:00은 시스템 조정 작업으로 인해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KB국민은행 고객센터(☎ 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http://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M

모든 순간이 행복할  
당신의 곁에 언제나,

**iM뱅크**

DGB대구은행 



# 평균 연령은 높은데 폭염에 강한 KT…비밀은 ‘볼넷 억제력’

최근 10경기서 9승…최하위서 4위로 수직 상승 ‘마법’

프로야구 kt wiz는 30대 베테랑 선수들이 주축이다. 1루수 박병호(37), 2루수 박경수(39), 3루수 황재균(36), 유격수 김상수(33), 포수 장성우(33)로 이뤄진 내야진은 10개 구단 중 평균 연령이 가장 높다.

이런 탓에 kt는 선수단 체력 관리를 고민했다. 시즌 개막을 앞두고 체력이 떨어지는 7~8월을 고비로 판단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정반대다. kt는 7월 이후 급상승세를 타고 있다. 7월 이후 26경기에서 19승 7패 승률 0.731을 기록했다. 10개 구단 중 1위다. 폭염이 기승을 부린 최근 10경기선 9승(1패)을 쓸어 담았다. 시즌 초반 최하위에 머물렀던 kt는 어느새 4위까지 올라갔다. 2위 SSG 랜더스와는 3경기 차이로 좁혔다. kt는 어떤 마법을 부린 것일까.

비밀은 ‘볼넷’에서 찾을 수 있다. kt는 이강철 감독 부임 후 투수들의 볼넷 억제력을 보인다. 9이닝당 내준 팀 볼넷이 2.84개로 10개 구단 중 가장 적다. 이 부분 2위 키움 히어로즈(3.25개)를 크게 앞서고, 최하위 SSG(4.34개)보다는 30% 이상이 적다.



kt wiz 이강철 감독

같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kt는 ‘볼넷’을 경기 승패의 요소를 넘어 한 시즌 선수단 관리를 통괄하는 핵심으로 여겼다. kt는 시즌 엄청난 볼넷 억제력을 보인다. 9이닝당 내준 팀 볼넷이 2.84개로 10개 구단 중 가장 적다. 이 부분 2위 키움 히어로즈(3.25개)를 크게 앞서고, 최하위 SSG(4.34개)보다는 30% 이상이 적다.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7월 이후 9이닝당

팀 허용 볼넷 기록을 살펴보면 격차는 더 늘어난다. kt는 2.19개로 압도적인 1위다. SSG(4.50개)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

이 기간 kt 선발 투수들의 볼넷은 더 줄어든다. 9이닝당 단 1.77개만 내줘 압도적인 최소 볼넷 1위다. kt 토종 에이스 고영표는 7월 이후 9이닝당 볼넷이 0.21개의 엄청난 기록을 냈다. 웨스 벤자민은 0.87개로 리그 2위, 윌리엄 쿠에바스는 1.72개로 7위, 엄상백은 2.03개로 11위다. 볼넷

기록은 다양한 형태로 팀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 우선 경기 시간이 짧아졌다.

kt의 올 시즌 평균 경기 시간은 3시간 9분으로 최소 시간 전체 1위다. 최하위 롯데 자이언츠(3시간 21분)보다 매일 12분씩 일찍 경기를 마치는 셈이다.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7월 이후 kt의 평균 경기 시간은 3시간 6분으로 키움(3시간 23분)보다 17분이 짧다. 수비 시간만 놓고 보면 kt 선수들이 받는 부하는 타팀보다 훨씬 적다. 30대 베테랑들이 폭염을 뚫고 버티는 이유다.

8월 이후 7경기에서 타율 0.520을 기록 중인 내야수 황재균은 “지치기 쉬운 여름철에 투수들이 빠른 템포로 정면 승부를 펼쳐줘 수비 시간이 타 구단들보다 훨씬 짧다”며 “투수들 덕분에 집중력이 높아지고 체력 관리가 용이하다”고 말했다.

이강철 감독도 “투수들이 짧게 이닝을 처리해주니 야수들이 수비에서 실수를 안하고 타석에서도 집중력을 발휘한다”며 “이번 배경 때문에 좋은 승률을 유지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 최준용 기자



한국과 일본의 경기 모습

## 한국 U-19 남자핸드볼, 일본 꺾고 세계선수권 첫 승

한국 19세 이하(U-19) 남자 핸드볼 대표팀이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에서 4연패 끝에 첫 승을 따냈다.

한국은 8일 크로아티아 코프리브니차에서 열린 제10회 세계남자청소년 핸드볼선수권대회 6일째 프레지던트컵 2조 경기에서 일본을 34-27로 물리쳤다.

1승 2패의 한국은 조 3위로 25~28위전에 진출, 10일 미국을 상대하게 됐다.

32개 나라가 출전한 이번 대회에서 조별리그를 통해 각 조 상위 2개국이 16강에 오르고, 16강에 나가지 못한 팀은 프레

지던츠컵이라는 별도의 순위전을 치른다.

한국은 조별리그에서 3전 전패를 당해 프레지던츠컵으로 밀려났고, 전날 프레지던츠컵 첫 경기에서도 아이슬란드에 23-38로 대패했다.

한국은 이날 최지환(원광대)이 8골을 넣고, 김현민과 이민준(이상 경희대)도 6골씩 터뜨려 일본을 잡았다.

우리나라는 일본, 바레인과 1승 2패 동률이 됐지만 골 득실에서 일본에 밀려 조 3위가 됐다.

/ 신승준 기자

## 13년 만에 아시안게임 복귀 바둑대표팀, 11일 진천선수촌 입촌

신진서·박정환·최정·김은지 등 남녀대표 4박 5일 입촌 훈련



2010년 광저우아시안게임을 앞두고 태릉선수촌 입촌훈련을 펼친 바둑 대표팀

바둑이 스포츠냐 아니냐를 두고 ‘설왕 설래’ 하지만 엄연히 대한체육회 정가맹 종목이다. 단 한 번뿐이었지만 아시안게임에도 참가했다.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남녀 단체전과 혼성복식 등 3개 종목에서 금메달 3개를 획득했다. 하지만 이후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과 2018년 자카르

타·풀템방 아시안게임에서는 종목이 제외됐다.

아시안게임 종목 선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것도 바둑이 빠진 이유다.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던 한국기원은 오는 9월 열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13년 만에 바둑이 재진입하자 크게 반기고 있다. 국내에서 저번 확대는 물론 아시아 전역으로 바둑이 널리 보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기원은 지난해 5월 일찌감치 남녀 국가대표 10명을 선발했다. 개인전과 단체전, 2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는 남자 종목에는 신진서·박정환·변상일·김명훈·

신민준·이지현 9단이 출전한다.

단체전만 출전하는 여자 종목은 최정·오유진 9단과 김채영 8단, 김은지 6단이 선발됐다.

광저우 때와 마찬가지로 3종목 싹쓸이를 노리는 바둑 대표팀은 오는 11일 충북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 입촌해 4박 5일간 단금질한다. 국내·국제대회는 물론 중국 바둑리그까지 정신없이 소화하는 선수들 이지만 국가대표선수촌에서 합동 훈련을 벌이기로 한 것이다.

대표팀은 입촌 기간 다른 종목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오전 6시부터 새벽 달리기와 웨이트트레이닝 등을 준비하고 있다.

프로기사의 가장 중요한 훈련인 바둑 연구회는 오전, 오후로 나눠 열린다.

여기에는 대표팀은 심리상담 강좌와 도핑 관련 설명회, 다 종목 메달리스트의 강연까지 선수촌에 요청했다.

/ 이진성 기자

## 류현진 무릎 X선 검사서 음성

### 14일 컵스전 등판할 듯

타자가 친 타구에 오른쪽 무릎을 정통으로 맞고 마운드에서 내려온 류현진(36·토론토 블루제이스)이 통증을 털어내고 14일(한국시간) 시카고 컵스를 상대로 한 흡 경기에 등판할 것으로 보인다.

MLB닷컴은 9일 존 슈나이더 토론토 감독의 말을 인용해 류현진이 X레이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예정대로 다음 경기에 등판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류현진의 다음 등판은 14일 오전 2시 37분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로저스센터에서 열리는 컵스와의 경기로 토론토의 1연전 마지막 경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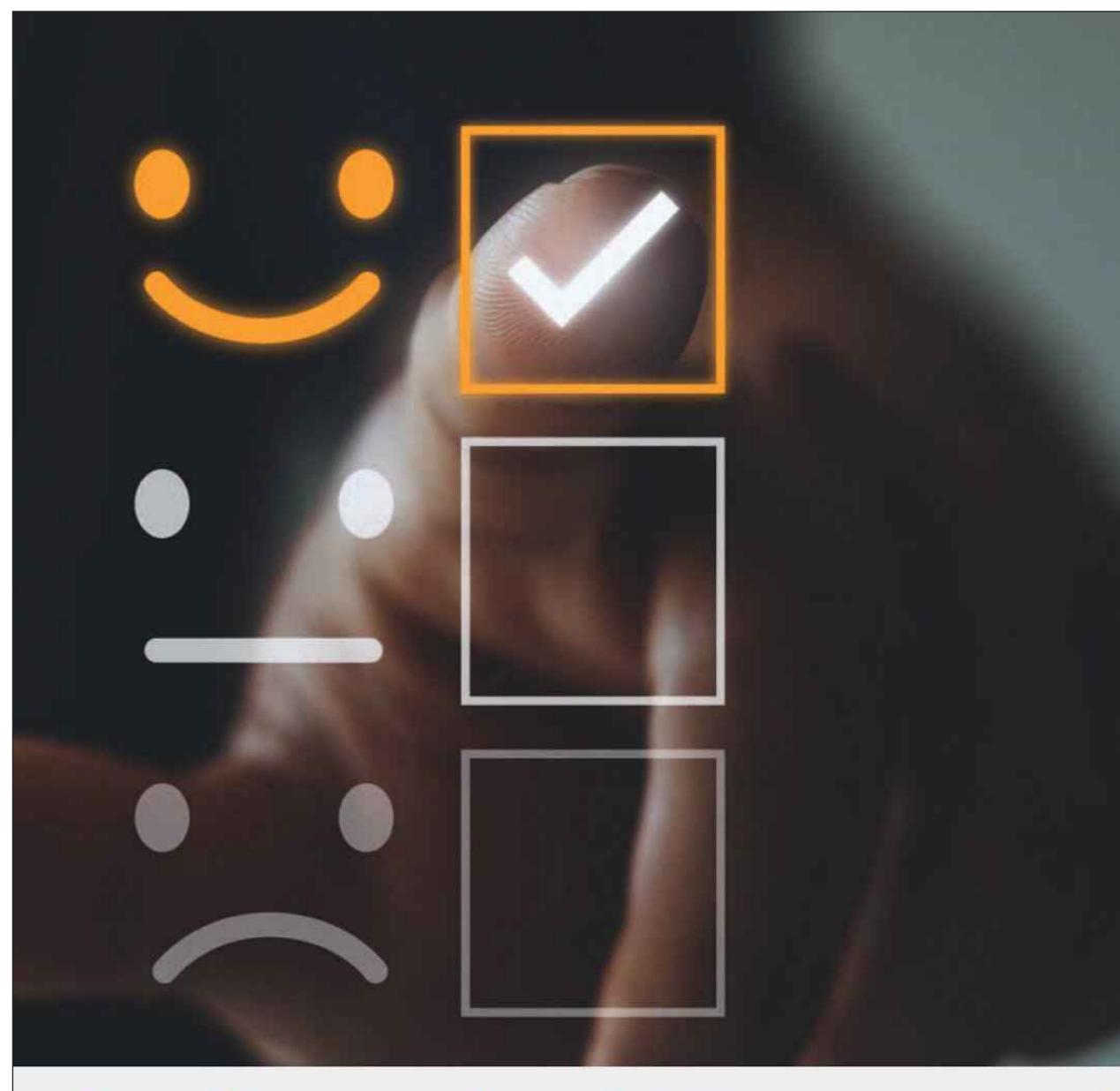
왼쪽 팔꿈치를 수술하고 14개월 만에 브리그 마운드에 돌아온 류현진은 8일 클리블랜드 가디언스를 상대로 한

두 번째 복귀전 등판에서 안타를 한 개도 맞지 않고 4이닝을 무실점으로 호투했다.

그러나 4회말 2사 1루에서 오스카 콘살레스가 친 시속 157km의 강한 타구에 오른쪽 무릎 안쪽을 정통으로 맞고 쓰러졌다. 통증에도 류현진은 다리를 맞고 굽절된 타구를 낚아채 1루에 정확한 송구로 아웃카운트를 잡아낸 뒤 그라운드에 누워 고통을 호소했다.

슈나이더 감독의 부축을 받고 더그 아웃으로 들어간 류현진은 타박상 진단을 받았고, 이날 병원에서 X레이 추가 검진으로 위중한 부상이 아니라 소견을 들었다. 류현진도, 가을 야구에 도전하는 토론토도 한숨을 돌렸다.

/ 백경호 기자



## 손해보험에 대해 상담받고 싶을 땐?

손해보험협회 상담센터를 이용해 보세요!

전화  
대표 클센터  
**02-3702-8500**

인터넷 & 모바일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consumer.knia.or.kr)  
접속 ➔ 보험상담 접수

카카오톡  
『손해보험협회 통합서비스센터』  
채널 추가 '상담' 메뉴 클릭  
\* 이용 가능시간 : 08:10~11:30, 13:10~17:30 (주말, 공휴일 제외)

• 변호사, 손해사정사 등 보험상품별 전문 인력이 제공하는 전문 상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보험소비자가 어디에서든 손쉽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22.6.14.부터 카카오톡 상담 시스템을 정식 오픈하였습니다.



 LG전자

# Life Sensation

청정에 스마트를 더한 AI 기술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는 삶



\*후선이 지향하는 삶에 대한 연출된 표현으로, 각동작을 위해서는 리모컨과 ThinQ 앱 조작이 필요합니다.

## LG WHISEN | Objet Collection



자동 청정 관리  
필터클린봇



온도/습도 자동 조절  
스마트케어



자동 절전모드  
레이더센서 외출절전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LG전자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스탠드|



|천장형|Way|

|창호형|



|이동식|



엘지이닷컴에서 확인하세요

**LGE.COM**

\*하루 8시간 사용 기준, 총 56시간(주일) 누적 사용 시 필터클린봇 청소 기능 작동(※에어컨 운전 종료 시)에 에어컨 미작동 시나 리모컨으로 필터클린봇 청소 기능 작동 가능 \*청소 성능: 자사 시험으로 Unit 면적 1m<sup>2</sup>면 보무리기 1회를 필터에 부착 후 먼지 제거 정도로 확인하였으며, 필터클린봇이 필터를 청소하더라도 8개월 주기로 먼지를 비워야 하며 수동으로 필터 청소도 가능합니다. \*냉방 성능 유지: 실험조건 - 실내기 강풍 저동운전/ 습입구 차폐 후 냉방 타스트 걸고, 실내 27°C, 실외 35°C, 실험모델 F-Q23LADRAI, 실험결과 - 열교환기 후면 60% 이상 낙월 시 냉방 성능 20% 이하 \*자사 시험 결과로 실제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필터의 청소 정도는 사용 환경이나 사용 패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리모컨의 페적 버튼을 눌러서 스마트케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케어 기능은 스마트케어 기능이 있는 모델에 한하여 스마트케어 기능은 모델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제품 내의 레이더 센서를 통해 에어컨 동작 중 인체 부재 여부를 자동 감지하고 부재일 경우 설정에 따라 절전모드로 전환하거나 전원을 off 하여 에너지를 절약해 줍니다. \*리모컨의 설정 버튼을 눌러 사용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용 방법은 사용 설명서를 참고하세요. \*필터클린봇, 스마트케어, 레이더센서 외출절전 기능은 스텠드형 제품의 기능 설명이다. 필터클린봇과 레이더센서 외출절전 기능은 스텠드형 력서리 모델에 한함